

■ <요약>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모형 구상

- 신 성장 모형은 정부 기능의 재정립부터 시작, 새로운 국가형은 ‘발전·복지 복합형’으로, 수행 방식은 ‘指示的(despotic)’에서 ‘基盤的(infrastructural)’으로 전환
 - 발전·복지 복합형 국가: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발전 국가형을 약화시키는 한편 복지 수요를 수용하는 복지 국가 형태를 가미
 - 수행 방식 변화: 계획·통제 중심의 ‘지시적’ 방식에서, 민간 자율 경제의 활성화와 복지 확충을 위한 제반 제도를 구축하는 ‘기반적’ 형태로 전환

-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전략
 - 민간 주도 성장: 시장 원리에 기초하여 민간 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
 - 대내외 수요 지향: 내수 확대로 대외 의존 심화에 따른 큰 폭의 경기변동 시정
 - 부문간 균형 발전: 부문별 소득 불균형 완화로 내수 확대 및 사회 결집력 강화

- 신 성장 전략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
 - 원활한 시장 형성: 금융, 산업, 노동 부문의 원활한 시장 제도를 구축
 - 인적 자원 향상: 교육 제도 혁신, 국가 기술 혁신 체제 구축, 사회 의식 개혁
 - 복지 수요 충족: 대가족 공동체 보존 등으로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 안 전망 구축, 경제 통제 기능을 복지 기능으로 전환

□ 시대 변화와 한국 경제의 위기

- 한국 경제 위기의 초래 원인은 크게 내인론과 외인론이 제기됨
 - 내인론: 기업 부문의 방만한 투자, 금융 부문 부실화, 대외 자산 관리 실패
 - 외인론: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 확산, 국제 투기성 자본의 횡포

- 內·外因論의 공통된 특징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임
 - 대외 환경 변화: 세계화 진전, 정보 통신 기술 혁신, 지식의 중요성 부각
 - 대내 여건 변화: 양적 요소 투입 성장 단계에서 질적 혁신 단계로 이행

- 한국 경제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는 그간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‘국가 기능의 무력화’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
 - 1960년대 이후 이룩된 한국 경제 발전 신화의 동력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‘국가 주도의 계획적인 수출 지향적 불균형 성장 전략’ 추구였음
 -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실천 미흡, 정부 부패 만연, 리더십 부재 등으로 국가 기능의 마비 현상이 심화됨

<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>

	20세기적 여건	21세기적 변화
경제 정책 추진 환경	- 국제화: 일국 중심의 경제 정책 유효성 존재	- 세계화: 일국 중심의 경제 정책 무력화
주요 기술 기반	- 산업 기술	- 정보 통신 기술
핵심 생산 요소	- 물적 자본 · 노동, 자본 중심	- 비물적 자본 · 정보, 지식 중심
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	- 양적 요소 투입 성장 단계 · 외연성장(추격 모방: catch-up)	- 질적 혁신 단계 · 내포성장(혁신창조: leapfrogging)

주 : 1) 핵심 생산 요소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의미함
 2) 21세기적 변화는 1990년대 이후의 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
 3) 각 항목별 변화는 상대적 중요성에 의한 것임

□ 국가 기능의 재정립

-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은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와 향후 성장 목표 그리고 대내외 제약 요인을 감안한 ‘국가 기능의 재정립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
 - 발전 단계: 혁신과 창조에 기초한 질적 혁신 단계
 - 성장 목표: 부의 균등한 향상과 통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 확보
 - 대외 제약 요인: 선후진국간 경쟁 격화,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 상존
 - 대내 제약 요인: 시장 제도 미성숙,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조정 과제, 실업 해소 등을 위한 복지 수요 증대

- 새로운 국가형은 ‘발전·복지 복합형’이 되어야 하며, 그 수행 방식은 ‘지시적(despotic)’에서 ‘기반적(infrastructural)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
 - 발전·복지 복합형 국가: 기존의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‘발전 국가형’을 약화시키는 한편 복지 수요를 수용하는 ‘복지 국가 형태’를 가미
 - 수행 방식 변화: 통제·지시에 의한 ‘지시적’ 수행 방식에서 민간 자율 경제의 활성화와 복지 확충을 위한 제반 제도를 구축하는 ‘기반적’ 형태로 전환
 - 이는 시장 질서에 의한 경제력 확보를 바탕으로 실업과 같은 시장 실패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‘시장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 관계’를 형성함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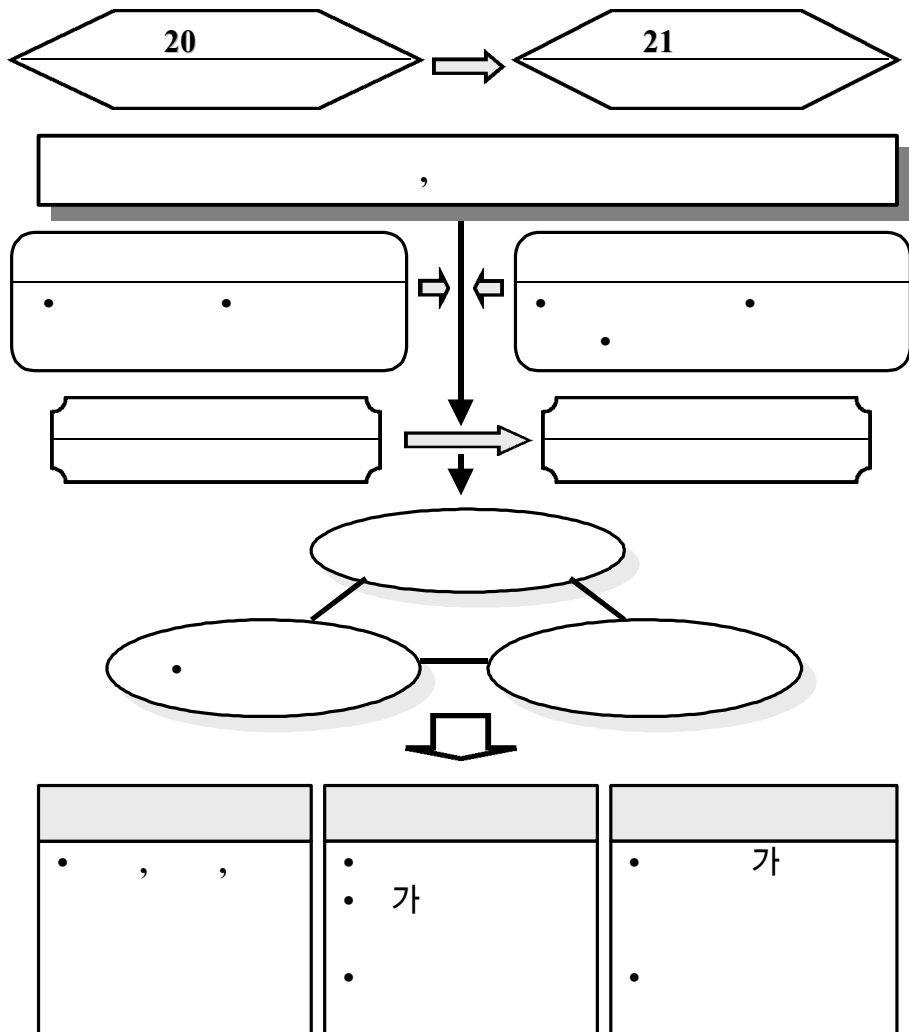
□ 새로운 성장 전략과 과제

- 국가 기능의 재정립에 기초한 신성장 전략은 민간 주도, 대내외 수요 기반, 부문간 균형 발전으로 설정할 수 있음
 - 민간 주도 성장: 시장 원리에 기초한 민간 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활용을 유도
 - 대내외 수요 확보: 중소기업과 부품 산업과 같은 내수 기반 산업 육성에 의한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해 대외 의존 심화에 따르는 극심한 경제 불안 현상 완화
 - 부문간 균형 발전: 지역간·계층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경제 전반의 수요 확대 및 사회 갈등과 결집력 이완 현상 해소

- 새로운 성장 전략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는 ‘성숙한 시장 제도의 구축’, ‘핵심 생산요소로서 인적 자원 향상’, ‘복지 수요 충족’임

- **원활한 시장 형성:** 금융, 산업, 노동 부문의 원활한 시장 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경제력 확보
- **인적 자원 향상:** 교육 제도 혁신, 사회 의식 개혁, 국가 기술 혁신 체제 및 정보화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인적 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
- **복지 수요 충족:** 빈부 격차 등 시장 기능 활성화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가족 공동체 보존과 같은 '아시아적 가치 활용의 사회 안전망 구축'과 지방자치제 활성화 및 정부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수 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정 확보

<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정책 과제 >



■ 유병규 연구위원 bkyoo@hri.co.kr ☎724-4060